

Issue Report

2016. 12. 31

CONTENTS

< 요약 >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홍동 유기농업의 시작
3. 홍동 유기농업의 성장
4. 홍동 유기농업의 확산과 정체
5. 홍동 유기농업의 특성 및 과제

홍동 유기농업의 현황과 과제

김기홍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kimkh@cn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홍동의 유기농업의 현황과 과제를 밝히는 데 있음.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홍동의 유기농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특성을 파악하여 홍동 유기농업이 가지는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함. 이를 통해 충남에서 나아가 전국의 유기농업 선진 사례로서 현재 농업이 처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함.
-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의 시작은 1970년대 중반으로 의식 있는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역사에 홍동마을이 있음. 홍동은 1975년 일본의 고다니 씨의 방문으로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유기농업이 시작되어 감.
- 1994년 오리농법이 도입되면서 홍동 유기농업은 전기를 맞게 되어 많은 농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냄. '도농일심(都農一心)' 함께 짓는 농사'를 위한 오리 값 보내주기 운동을 통해 처음으로 도시민과의 교류가 이루어짐. 이후 흑향미의 보급은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의 더 많은 농가의 실천으로 이어짐.
- 홍동면 유기농업은 14개리 23개 마을 전체에서 이루어졌으며 2002년까지 472농가에 달하는 등 급격한 성장을 보임. 하지만 2005년을 피크로 전국적인 유기농 쌀 재배 농가의 증가와 쌀 소비의 감소로 점차 정체되어 감.
- 이러한 홍동 유기농업 발전의 특징은 우선 지역환경 보전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농가들의 굳은 신념. 다음으로 농가간 공유로 단합과 연대로 이어졌다는 점. 마지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나아가 생산자와 시민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들 수 있음.
 - 한편 홍동이 안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령화 문제는 지역의 귀농귀촌인과의 교류를 통한 방법으로, 오리농법의 축소 문제와 도시민 교류 문제는 오리농법 부활 가능성과 함께 이를 대신하여 홍동면 유기농업의 가치를 도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연구 배경과 목적 ◀

01

- 농업이 처한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님. 특히 올해는 쌀 풍년이 쌀 값 하락으로 이어져 농업 자체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농가도 늘어나고 있음. 우리의 생명줄인 식량 가운데서도 주식인 쌀을 생산해 온 농민의 자긍심과 그간의 노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오랫동안 유기농 오리 쌀로 그 유명세를 지켜온 홍동의 사례를 통해 작으나마 탈출구를 찾아보고자 함.
- 홍동의 유기농업은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1990년대에는 오리농법을 도입하여 많은 농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친환경농업의 전국적인 확산에 기여하면서 국내 유기농업의 메카로 자리잡게 되었음.
- 이러한 유기농업은 다양한 마을만들기 운동의 기반이 되어 전국적으로 성공 사례로 인식되고 있으며 연간 2만명의 방문객이 홍동의 경험을 배우려고 직접 마을을 방문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홍동의 유기농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특성을 파악하고 홍동 유기농업이 가지는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함. 이를 통해 충남을 나아가 전국의 유기농업 선진 사례로서 현재 농업이 처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함.

홍동 유기농업의 시작 ◀

02

-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의 시작은 1970년대 중반으로 의식 있는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시작되었음. 홍동에서 이러한 계기가 마련된 것은 1975년의 일로 일본의 유기농업단체인 애농회와 애농학교의 이사장인 고다니 준이치 씨가 부천 소사의 공동체와 홍동의 풀무학교(1958년 설립)를 방문하면서 이루어진 유기농업에 대한 강의에서 시작됨.
- 당시 원경선 선생님의 초청으로 한국에 오게 된 고다니 씨는 부천의 소사농장에서 강연을 가진 후 다음날 새벽같이 완행기차를 타고 홍동에 도착하였으며(홍순명 씨 면담), 점심도 먹지 않고 시작된 강연에서는 풀무학교의 중고등학생 등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석하여 한일 역사에 대한 사죄와 더불어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에 대한 위험성과,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게 됨.
- 여러 번의 강의를 통해 홍동 풀무학교를 시작으로 소수의 재학생을 중심으로 작은 실천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단체인 정농회의 설립(1976년)으로 이어지게 됨.
- 홍동의 정서적 기반인 풀무학교에서조차도 유기농업이 이루어지지는 못하던 시절로 이를 계기로 홍동에서의 유기농업의 기반이 마련됨. 당시 재학생이었던 주형로 씨(57세)는 실제로 효소 기술을 통해 유기농업을 실천해 가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가게 됨.

- 당시 풀무학교 3회 졸업생 주정배 씨(68세)는 졸업 후 학교에 재직 중에 유기농업에 대해 배우기 위해 한국농업인기술자협회를 통해 일본의 애농회 부설 고등학교인 애농학교에서 연수를 하는 등 일본과의 교류가 시작됨. 1977년 애농회 초청으로 1년간 애농학교에서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낙농부, 화훼부 등 농업의 다양한 방면에 대해 배워오게 됨.
- 홍동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한 또 다른 인물 중 하나인 오영남 씨(67세)는 고향을 떠나 지내다 돌아오게 되었는데 관리되지 동안에 지력이 심하게 훼손된 것을 알고 땅심 살리기를 중심으로 한 유기농업을 실천하기 시작하였음. 지력 회복을 위해 풀과 농작물, 음식물 등 부산물을 이용한 퇴비만들기를 실시하기도 함.
- 유기농산물은 초기에는 경실련 정농 생협 대표가 통합한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아파트에서 직거래 형태로 판매됨. 하지만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형성된 상황은 아니어서 제값을 받기는 쉽지 않았음.
- 이후 소비자와의 본격적인 교류는 1989년 한국여성민우회생협이 풀무생협 생산자 그룹에게 유기농산물을 제공받게 되면서 이루어짐. 당시 진보적인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1987년 창립)는 다양한 활동들 가운데 먹거리에 대한 관심으로 먹거리 중심의 한국여성민우회생협을 새로 만들게 됨.
- 홍동의 현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교류는 1992년에 이루어졌음. ‘가을걷이’라는 행사는 인근 청양군 화성면 유기농업 단체가 실시한 ‘거저’(공짜, 무료)축제에 참여한 주형로 씨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는데, 회비를 내지 않아도 선뜻 농산물을 내어주고 지역민과 도시민이 함께 하는 축제의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라고 함.
- 지역민과 도시민 약 400명이 함께 한 소통의 장은 이후 오리농법의 도입과 함께 본격적인 도농교류의 계기로 자리잡게 됨.

홍동 유기농업의 성장 ◀

03

- 홍동에서 유기농업은 농법에 대한 고민으로 주위 농가들이 쉽게 함께 하지는 못함. 이후 1994년 오리농법이 도입되면서 홍동 유기농업은 전기를 맞게 됨. 이 시기는 우루과이 라운드로 글로벌 환경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던 시기로 유기농업의 필요성이 일반 농가들에게도 인지되기 시작함.
- 오리농법은 홍순명 씨가 일본의 한 서점에서 오리농법에 대한 책을 발견하고 이것이 당시 유기농업에 열성적이었던 주형로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여 번역하여 전해주면서부터 알려지게 됨. 이후 일본에서 오리농법을 처음 시행한 후루노 다카오 씨가 창녕에서 강연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시 농업교육을 담당하던 최상업 선생과 함께 찾아가 강연을 듣게 되면서 인연이 시작됨. 이후 지역 농민들이 함께 한 가운데 본격적인 한일 교류로 확대되어 감.
- 당시 홍동에서는 도시민과 함께 하는 오리농사짓기의 방법을 고안하게 됨. 홍동 농민들의 오리농법의 실천에 도시민이 오리값을 보내주어 유기농 쌀 농사의 일부를 도시민이 함께 담당하는 형태를 지향한 것임. 이로써 1995년 중앙일보에 ‘도농일심(都農一心) 함께 짓는 농사’를 위한 오리 값 보내주기 기사가 실리게 됨.
- 오리농법으로 확대된 홍동의 유기농업은 1996년 중국에서 들여온 검정 흑향미 도입으로 부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게 되면서 지역의 더 많은 생산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게 됨.

- 이로써 홍동농협과 최초로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면서 안정적인 판로의 확보가 가능하게 됨. 유기농 흑향미의 좋은 반응으로 일반 유기농 벼도 취급하게 되면서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하게 됨. 이후 전용 RPC의 설립도 가능하게 됨.
- 농협과의 안정적인 계약으로 인해 흑미 재배 농가수가 늘어나면서 수량 조절을 위한 내부적인 규약이 마련됨. 문당리에서는 ‘검정쌀 규약’을 통해 농토가 적거나 지역 외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후에 지역 내 농가에게 재배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농가들에게 유기농업의 기회를 주고자 하였음(주형로 씨 면담).
- 이 기금으로 문당리 환경농업교육관 부지 구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유기농업 기반의 본격적인 마을 만들기 토대를 마련하게 됨.

홍동 유기농업의 확산과 정체 ◀

04

- 홍동면 유기농업은 2000년이 되면서 급속히 확산되어 마을 단위로 구성되는 작목반으로 이루어진 홍성 친환경 작목회 회원은 2000년에 372농가에 이릅니다.
- 당시 홍동면 유기농업은 문당리, 금평리, 홍원리, 효학리, 운월리, 원천리, 화신리, 구정리, 팔패리, 월현리, 대영리, 신기리, 금당리, 수란리로 법정리 14개리 전체에서 이루어졌으며 총 23개 마을에서 실시됨. 다시 2년 후인 2002년에는 약 100농가가 더 늘어 472농가에 달하게 됨.
- 이 외에도 홍동 외 지역에서는 금마면 24농가, 장곡면 37농가, 청양군 화성면 18농가, 보령시 청라면 32농가가 참여하는 등 유기농업의 확산이 홍동면을 넘어 이루어짐.
- 하지만 이러한 확대 경향은 농가 회원 전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으로 나타남.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았던 청양군과 보령시 농가들은 실제로 모니터링 하기도 용이하지 않게 됨.
- 이로써 2005년, 장곡면과 청양군과 보령시의 회원 농가들은 독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유기농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참여하게 된 농가들의 농약 사용 등의 적발 사건으로 자체 정화 과정을 통해 인증강화작업으로 이어지게 됨.
- 오리농법의 증가는 2000년부터 2005년에 걸쳐 피크가 되었고 2005년까지 약 5만수의 오리를 방사함. 이러한 성장세는 2008년까지 지속됨. 그러나 2005년이 되면서 흑미는 증가세가 추춤하게 되어 2006년에는 적자가 발생함.

- 이는 판매량이 이미 포화상태였으며 전국적인 유기농 쌀 재배의 확산과는 대조적으로 쌀 소비량은 감소 추세에 있었기 때문임. 이 때문에 농협에서는 농가로부터 매취하던 쌀을 수량 제한하게 됨.
- 이러한 문제는 고령화문제와 함께 계약 농가의 감소로 이어져 2007년에는 회원 농가수가 270농가에서 225농가로 줄어들게 됨. 현재는 유기농 일반벼가 주 상품으로 흑향미는 일부만 취급하고 있음.
- 또 홍동 유기농업의 상징인 오리농법은 2008년 조류독감의 발생으로 한해 완전히 그만두게 됨.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많은 농가들이 오리로 농사짓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서 기존에 오리 사육과 관리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오리농법을 그만두는 농가가 증가함. 이를 대신하여 우렁이 농법이 보급되기 시작하며 약 85%의 농가가 오리농법을 포기하게 됨.
- 홍동 마을의 오리농법은 현재 상징적으로 남게 되었지만 농협작목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2013년부터 오리농법을 지켜가자는 의미에서 세 구간 중 한 구간(900평)을 오리농법을 통한 재배로 의무화하게 됨.

홍동 유기농업의 특성 및 과제 ◀

05

- 이상에서 살펴본 홍동 유기농업의 첫 번째 특성으로는 지역환경 보전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농가들의 굳은 신념을 들 수 있음.
- 두 번째로는 이러한 노력이 공통된 신념을 농가가 함께 공유하여 단합과 연대로 이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홍동의 유기농업은 생산자와 소비자, 나아가 생산자와 시민과의 적극적인 연대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홍동 유기농업의 과제로는 농가의 고령화와 오리농법의 축소, 그로 인한 생산자 소비자 간 교류 기회의 단절 문제가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우선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지역을 찾고 있는 귀농귀촌 인과의 교류를 통해 후계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
- 오리농법의 축소 문제와 도시민 교류 문제는 오리농법 부활 가능성과 함께, 이를 대신하여 홍동면 유기농업의 가치를 도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홍동의 유기농업의 발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초창기의 역사가 후세대를 위한 귀중한 경험과 재산으로 살아날 수 있어야 할 것임.